

李朝人物略傳 (卅五) 明宗朝 (續)

；成渾 宋翼弼 徐起 曹植

金滢植(抄)

成渾 字는 浩源이오, 號는 牛溪이니 昌寧人이라. 年이 十七에 司馬 兩試를 發疑하고 病으로 因하여 覆試에 不赴하고, 自此로 科業에 絶意하고 學問에 專精하여 栗谷先生과 理氣問議가 多하니라. 戊辰에 遺逸로 薦하여 持平을 拜하니 栗谷이 渾더러 일러 曰, 君이 七次 召命을 承한지라. 엇지 一次 赴京하여 謝恩 辭退치 아니하뇨. 渾이 曰, 天顔을 一瞻함이 榮幸이 大하나 朝廷에 辱될지라 엇지 하리오 하더라. 戊戌에 卒하니 年이 六十四라. 文簡이라 賜諡하고 孔子廟에 從祀하니라.

宋翼弼 字는 雲長이오, 號는 龜峰이니 礪山人이라. 翼弼이 科學의 外 用心 處잇음을 알고 性理 諸書를 日夕 講討하여, 論說 理致가 通透洒落하여 礙滯할 바이 업더라. 寧原君 鄭可臣이 翼弼과 相善하니 其弟 參議 慶臣이 不悅 曰, 翼弼은 賤漢 宋祀連의 子오, 私婢 甘丁의 孫이라. 엇지 兄님과 頡頏하리오. 내 翼弼을 보면 반다시 辱하리라 한대 可臣이 笑曰, 반다시 能爲치 못하리라 하더라. 其後에 慶臣이 翼弼을 보고 降階迎拜함을 不覺하고 人더러 일러 曰, 龜峰의 人物을 봄에 비록 拜迎코자 아니하나 我膝이 自屈함을 不覺하더라.』하니 翼弼의 人物과 威猛을 可知할 바니라. 宋翼弼, 李山海, 崔慶昌, 白光勳, 崔岏, 李純仁, 尹卓然, 河應臨을 八文章이라 稱하나니라.

徐起 字는 待可오, 號는 孤靑이니 利川人이라. 年未 成童에 百家衆技를 無不涉獵이라. 弱冠에 土亭 李之菡의 門에 遊하여 土亭으로 더부러 漢拏山에 登하고 四方에 周遊하니라. 公州 鷄龍山 孤靑峰 下에 居하여 力田勤穡하여 朝夕을 供하고 秋夏의 交에 山梨를 煮하여써 飢를 充하여 講學함을 不輕하니 遠方의 人士 負笈來學하더라. 守菴 朴技華-其墓에 銘하여 曰『噫, 待可, 生于東, 劬墳典, 賁厥躬, 一片石, 守幽宮, 江有月, 山有楓.』云々.

曹植 字는 健仲이오, 號는 南冥이니 昌寧人이라. 少時에 豪氣絶倫하여 其才를 自負하더니, 및 『志伊尹之志, 學顏淵之學, 出則有爲, 居則固守』라 한 許

魯 齋衡의 心法을 見하고 惘然自失曰, 古人 爲己의 學이 大概 如此하다 하고 刻意奮勵하고 勇往直前하야 諸子百家를 博通하니라. 人을 敎함에 만다시 資 品을 隨하야 激勵하고, 書를 讀함에 章解句釋함을 질겨하지 아니하고 다뭇 宗旨를 領略할 畚이더라. 일즉 時政을 疏論하야 曰『慈殿塞淵, 不過深宮之一 寡婦, 殿下幼沖, 不過先王之一孤嗣, 天災之百千, 人心之億萬, 何以當之.』리오. 上이 震怒하거날 左相 尙震이 救解하니라. 先生이 嘗曰『今之學者, 高談性理, 無實行於其心, 如遊通都大市, 見珍寶奇玩, 空談高價, 不如沽得一尾魚, 聖人之 旨, 前儒既盡言之學者不患不知, 患不行, 其得力之淺深. 在我之誠不誠如何耳, 吾於學者, 喚覺昏睡而已, 開眼能見天地日月, 談經說書, 不如反求而自得』(出眉 叟記)